

정부, 설 명절 앞두고 물가잡기 나선다

농식품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10대 성수품 평소 물량비 1.4배 더 풀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잡기에 본격 나선다. 배추·무·사과·계란 등 10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1.4배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전 2주(2월 1~14일)간 이 같은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시중에 풀리는 10대 성수품의 하루 물량은 8035t이다. 평소의 570t보다 1.4배 많다. 품목별로는 사과(350~450t)와 배(300~400t)가 평소 공급량보다 각각 2.4배, 2.6배 더 시중에 쏟아진다. 설과 추석이 총생산량의 절반 가량이 소비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배추(180~270t)와 무(234~450t)의 공급량도 평소보다 각각 1.9배씩 늘린다.

축산물의 경우 하루 공급량을

5654t으로 지난해(4658t)보다 1.2배 확대하기로 했다. 소고기는 평소 662t에서 800t으로, 돼지고기는 3023t에서 3700t으로, 닭고기는 785t에서 950t으로, 계란은 165t에서 204t으로 늘려 공급한다.

임산물인 밤(6~9t)과 대추(1~2t)으로 각각 1.5배, 2배 시중에 풀는다.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372곳과 농협·신협 조합 판매장 2212곳을 설 전까지 확대 운영한다.

성수품과 농축산물 선물세트는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중소과로 구성된 과일세트 5만개를 농협계통매장과 효소핑에서 20~30% 산 값에 판다. '부정정탁 및 굶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정탁금지법) 개정에 맞춰 10만원 이하의 소포장·실속형 축산물



선물세트 2만4000개를 준비해 10~20% 할인가에 팔기로 했다.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1400만개의 할인폭은 최대 40%까지다. 임산물도 최대 40% 산 값에 공급한다.

정부는 국산 농축산물 선물하기 캠페인과 함께 정탁금지법 가격 기준을 충족한다는 스티커 배포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보는 버스터미널, KTX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진행한다.

이윤러 농식품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수급안정대책반'을 통해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한다. 공급 불안이 우려되면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수급 조치를 취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요가 집중되는 10대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 및 알뜰 소비 지원과 함께 정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우리 농산물 선물하기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계란정보	난각 표시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농장(소재지) : 승일농장(전남 해남) · 난각표시 : 13승일농장 	

해남군 닭 농가 계란 '부적합 판정'...전량 회수·폐기기로

피프로닐 설펜 검출(0.12mg/kg)

해남군에 있는 닭 농가의 계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해당 농가의 계란을 모두 회수해 폐기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해남군 소재 신단계(알 낳는 닭) 농가의 계란을 검사한 결과,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펜이 검출(0.12mg/kg)돼 부적합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적합 농가가 보관·유통 중인 계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된다. 또한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이 차단된다.

정부는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고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펜이

검출된 검사결과를 볼 때 살충제 불법 사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펜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피프로닐 설펜이 신단계 농가에서 닭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생산지단체 주관으로 피프로닐 설펜 제거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드기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시범사업, 신약 등록·개발 등 닭 진드기 방제 방안도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쯤 돌려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용품 '불티'...뿌리는 단열재 등 이색용품 '눈길'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방한용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아이

디어가 돋보이는 이색 보온용품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28일 티본은 한파가 시작된

22~25일 방한용품 매출 추이를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88%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8년 뷰티 트렌드는 글로우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최민도)가 이번 시즌 메이크업의 트렌드 키워드는 '글로우'로 매트 메이크업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메이크업을 광나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스뿐만 아니라 입술도 글로시하게 연출하면 더욱더 밝고 건강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광주신세계 2층 입성로랑 매장에서는 이번 뷰티 트렌드에 맞춰 신제품 워터 글로스를 출시했다. 끈적임 없이 부드럽고 편안한 텍스처로 겨울에 건조하기 쉬운 입술을 촉촉하고 생기 넘치게 만들어주는 워터 글로스는 12가지 색상으로 가격은 43,000원이다.

겨울난방가전은 87% 매출이 상승했다. 전기요와 전기장판의 매출은 168% 증가했다. 온풍기는 40% 진기히터는 29%매출이 상승했다. USB손난로 등 휴대용 난방용품도 71% 매출이 뛰었다.

또 넥워머와 스카프, 장갑 등 잠화류의 매출도 늘었다. 스카프는 167% 늘었다. 넥워머는 99%, 장갑은 94% 가량 늘었다.

한파에 수도배관 동파 사고가 잇따라 동파방지 용품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씨머스몰매장이 운영하는 가격비교 사이트 '에누리 가격비교'에 따르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강한 한파에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동파방지 제품 매출이 전주 동기 대비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파방지용품 중에서도 수도동파방지 히터와 보온 테이프의 판매량이 돋보였다. 수도동파방지 히터는 수도나 계량기 파이프 부위에 감아 사용하면 50~70도로 보온을 유지해 전기절약과 동파방지에 효과적이다.

11번가 관계자는 "단열 필름을 액상으로 만든 뿌리는 단열재, 동상에 노출되기 쉬운 발가락 보호해주는 발 내복 등이 인기를 보이고 있다"며 "신발 속에 넣을 수 있는 깔창형 핫팩은 최대 12시간 지속되며, 발히터는 부피가 작아 가정은 물론 사무실에서도 사용하기 용이하다"고 말했다.

서민 대상 '안전망대출' 오늘부터 사전신청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으로 금융당국이 1조원을 투입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안전망 대출'이 다음달 8일 출시된다.

금융위는 상품 출시 직후 신청자의 혼신과 불편 방지를 위해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월 7일 이전 금리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해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저신용·저소득자다.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며, 금리는 12~24% 수준이다. 대출 성실 상환 시에는 6개월마다 최대 1%p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한 100% 보증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차세대 전산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한다.

사전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분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뉴스스

4월 Lotto 제 791회차 당첨결과 (2018년 1월 27일 추첨)

2 10 12 31 33 42 + 32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14	1,253,081,893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38	76,943,625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410	1,213,219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2,931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713,102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약정일)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